KIA 불펜 반등 중심축, 전상현 '소리없이 强하다'

지난 2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7회말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이거즈 최초 4년 연속 두자릿수 홀드' 막강 셋업맨 우뚝

'6월 대반전'…1승 8홀드, 평균자책점 1.80, WHIP 0.73
18일 kt戰 무실점 이후 4경기 연속 홀드, 든든한 버팀목

KIA 불펜이 다시 탄탄해진 배경에는 6월 들어 진가를 되찾은 전상현이 있었다.

흔들렸던 투구 내용을 뒤로하고 제구와 구위를 되찾으며, 다시 팀 뒷문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 25일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도 이를 증명했다. 5-2로 앞선 7회말, 선발 올러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그는 단 11개의 공으로 3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시즌 15홀드째를 챙겼다. 첫 타자를 초구 외야 플라이로 잡은 데 이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내야 땅볼, 마지막은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그의 6월 성적은 1승 8홀드, 평균자책점 1.80, WHIP 0.73. 총 13경기 중 10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았고, 15이닝 동안 볼넷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피안타율 0.208, 피OPS 0.487로 상대 타선을 완전히 묶었다. 밸런스와 이닝 운영 모두에서 확실한 반등을 증명한 한 달이었다.

18일 kt전에서는 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고, 이후 4경기 연속 홀드를 기록하며 필승조의 핵심 역할을 이어갔다. 팀이 6월 13승 6패 1무, 승률 0.684로 리그 최상위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전상현의 탄탄한 뒷문이 있었다.

시즌 누적 기록도 흐름을 보여준다. 전상현은 현재까지 43경기에서 39⅔이닝을 소화하며 15홀드(리그 4위), 평균자책점 3.63, WHIP 1.26, 피안타율 0.257을 기록 중이다. 특히 한 달 사이 평균자책점을 1.1포인트 넘게 낮추며, 마운드 반등의 흐름을 스스로 만든 셈이다.

시즌 초반에는 잇따른 난조로 2경기 연속 패전을 맛보며 주춤했다. 이후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5월에 다시 기복을 드러냈다. 이 기간 16경기에 출전해 팀 불펜 중 가장 많은 피안타(19개)를 기록했고, WHIP도 1.85에 달했다. 그래도, 큰 무너짐 없이 버티며 마운드 운영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6월, 마침내 확실히 제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그는 단지 올 시즌에 반등한 투수가 아니다.

전상현은 지난해 KIA의 통산 12번째 통합 우승을 이끈 핵심 불펜 자원이다. 2024시즌 정규리그에서만 66경기 66이닝을 던지며 10승 5패 7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4.09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 꾸준한 활약을 바탕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승선했고, 팀과 함께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다.

KIA 구단 역사상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홀드를 달성한 그는, 리그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꾸준함을 가진 셋업맨이다.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킨 채 마운드에 오르는 전상현의 모습은 이제 KIA 불펜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다.

김도영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그는 KIA의 '잇몸 야구'를 받쳐주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다.

그가 마운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벤치는 한 박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즌 중반기로 접어든 지금, 전상현이 앞으로도 불펜진의 중심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여대 오예진, 거리별 전 종목 메달 '명중'

대통령기 양궁대회, 30m '金'·70m, 60m, 50m '銀'
남구청 이승윤 90m 金·광주은행 최미선 30m '金'

광주여대 오예진(사진)이 2025 여자양궁 국가대표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거리별 경기에서 전 종목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대회에서 개인전과 70m, 30m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3관왕에 올랐던 오예진은 2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30m 경기에서 358점을 쏴 공동 2위 조민서(동서대·357점), 정다예나(창원대·357점)를 1점차로 따돌리며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예진은 50m 경기에서는 343점으로 김세연(경희대·347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전날 열린 70m에서 340점을 기록하며 1위 정다영(한체대·342점)에 이어 은메달, 60m에서 342점으로 염혜정(경희대·347점)에 이어 나민지(계명대), 이수현(계명대), 탁해윤(순천대)과 공동 은메달를 차지했던 오예진은 거리별 4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따냈다.

오예진은 거리별 경기 점수를 합산한 개인종합에서 1천383점을 기록, 2위 염혜정(1천371점), 3위 조민서(1천360점)을 멀찍이 따돌리며 1위로 27일부터 올림픽 라운드로 치러지는 개인전 경기에 나선다.

남자일반부에 출전한 국가대표 이승윤(남구청)은 전날 열린 90m 경기에서 325점을 쏴 구본찬(현대제철·325점)과 공동 금메달을 따냈고, 국가대표 김수린(광주시청)도 여자 일반부 60m에서 348점을 쏴 1위 조아름(현대백화점·349점)에 이어 박수빈(청주시청·348점)과 공동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자일반부 30m에서는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을 비롯해 임두나(LH), 곽예지(대전시체육회), 이은아(홍성군청), 손서빈(여주시청), 박소민(LH)이 356점을 쏘며 6명이 공동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고등부 출전한 광주체고 전준희는 30m에서 356점을 기록, 김태서(충북체고), 조세현(서울체고)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프레 대회로 열리는 제43회 대통령기양궁대회는 27일 남녀 고등부, 일반부 전 종별 개인전(64강-4강), 28일에는 전 종별 혼성단체전·단체전이 열리며 29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대망의 개인전, 단체전 결승전이 치러진다. /박희중 기자

안양, 너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간다

광주FC, 아사니 선봉 승점 3 '정조준'…7월 대도약 서막 연다

광주FC가 FC안양과의 일전을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삼는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안양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2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비록 승점 3점을 얻진 못했지만, 공격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소득을 챙긴 경기였다.

광주가 자랑하는 공격 듀오 아사니, 헤이스는 맹활약을 펼치며 각각 1골 1도움과 1도움을 기록했다. 여기에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박인혁까지 골 맛을 봤다. 특히, 지난 3월1일 3라운드 안양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해 광주를 승리로 이끌었던 아사니는 2경기 연속골 도전하며 공격 선봉에 설 전망이다.

현재 광주는 리그 7승 7무 6패(승점 28), 6위를 질주하고 있다. 상대 안양은 7승 3무 10패(승점 24), 9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하위권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광주가 승점 3점을 얻는다면 7월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광주는 안양전을 끝낸 후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 7월18일까지 리그 경기가 없다. 7월2일 코리아컵 8강전이 예정돼 있지만 숨 가빴던 5, 6월과 비교할 때 다소 여유가 있다.

지난 22일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전 골을 터뜨린 박인혁이 팀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6월 마지막 경기에서 안양을 잡는다면 좋은 분위기를 7월로 이어감과 동시에 남은 일정 준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광주는 지난 수년 동안 안양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2019년 10월 이후 안양과 치른 6경기에서 모두 패하지 않았을뿐더러 최근 10경기로 넓히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5번 만나 3승 2무로 안양 상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는 좋은 기억을 되살려 안양을 누르고 상위권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박희중 기자

지난 26일 나주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학년도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사제동행 스포츠 버스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스포츠버스 지원 사업 전국 최다 선정

고흥 도화고, 진도 지산중 등 7개교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신호

전남도체육회가 '2025년도 행복나눔스포츠교실(스포츠버스 지원)' 공모에서 전국 최다 학교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26일 "대한체육회가 최근 공모한 '스포츠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기술과학고, 고흥 도화고, 여수화정초, 완도 청산중, 순천 승남중, 진도 지산중, 영광 군남중 등 총 7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포츠버스 사업은 뉴스포츠, VR 스포츠, 문화체험 등 다양한 종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각종 운동장비와 용품을 탑재한 스포츠버스가 도서(섬), 벽지(외딴 지역), 접적(군사보호 구역) 등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를 찾아가 소규모 운동회 및 스포츠 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30개교가 선정됐으며, 이 중 전남이 7개 학교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도체육회는 선정된 7개교 중 4개교(전남기술과학고, 고흥 도화고, 진도 지산중, 영광 군남중)를 '연합 운영' 방식으로 신청해 인근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함께 다양한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스포츠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체육 격차를 줄이고, 전남의 모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연대기여금 미납사태'…몰수패 면했지만 추가 징계 가능성

FIFA, KFA·광주 '추가징계 검토' 거론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금지 징계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이 서한에서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대한축구협회)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썼다.

다만, 징계 가능성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언제까지 축구협회가 소명하라, 어떤 자료를 내라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면서 "FIFA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요청이 있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다.

FIFA가 지난해 12월 광주에 보낸 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월드컵 등 'FIFA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FIFA의 추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FIFA는 추가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광주가 국내에서 치른 경기의 선수 등록, 출전 자격 등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번 서한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올 시즌 치른 국내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날 거로 보인다. /연합뉴스